

형형색색 물든 강천산 '절정'

11월 가볼만한곳 선정 일 3만명 이상 방문 예상

순창 강천산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11월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됐다.

강천산은 해마다 120만명 관광객이 찾는 4계절이 아름다운 관광지로서 특히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강천산의 단풍은 이번주부터 절정을 이뤘다. 11월 중순까지 붉은 유혹으로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한다. 강천산 단풍은 색깔이 유독 붉고 병풍폭포에서 구경할 폭포까지 이르는 왕복 5km 구간의 맨발산책로에 애기단풍이 병풍을 치듯 펼쳐져 있다.

절정기에는 숲 전체가 붉은 용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붉은 빛을 띤다. 맨발산책로는 아이들이나 어르신,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평탄한 코스로 남녀노소 모두가 단풍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높이 40m의 병풍바위와 높이 120m에서 3줄기 폭포수가 내려오는 웅장한 구상군 폭포는 가을 강천산의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은 순창군 강천산의 강천사 정자.

아름다움을 더한다.

높이 50m의 현수교도 아찔한 출렁거림으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강천사의 수수한 모습도 가을에 딱 맞는 강천산 만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군 측은 이번주부터 단풍 관광객이 몰리면서 하루 3만명 이상이 강천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우선 관광객이 가장 불편해하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천산 진입로 500m 지점인 음운온천수 부지

를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셔틀 버스를 운영해 공원입구까지 교통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임시 주차장부터 강천호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도보길도 운영해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천산 애기 단풍은 전국에서 가장 붉은 빛을 띠는 아름다운 단풍이다"면서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11월 단풍이 아름다운 강천산에 들르셔서 만추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119안전센터 신청사 '문 활짝'

노후·협소한 사무공간 확장 고품질 소방행정서비스 기대

임실119 안전센터(센터장 김경호)는 25일 임실119안전센터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승일 행정부지사와 이선재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심민 임실군수, 기관 및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축된 임실 119안전센터는 임실읍 이도리 400-18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작년 5월에 재건축 계획을 수립, 올해 9월에 재건축 공사를 마쳤다.

임실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은 기존에 노후화된 소방청사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협소한 사무공간을 크게 확장해 소방공무원

복지를 증진하는 등 민원인에게 고품질 소방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재건축됐다.

부지면적은 3,753㎡에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은 919㎡이다. 신청사에는 소방차량 6대(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차, 구급차)와 25명의 소방대원이 배치,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초기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민 군수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임실119안전센터가 오늘날 신청사 준공식을 갖게 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화재구조구급활동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실119안전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새만금권역 오염행위 꿈짜미"

환경감시협의회 회의 개최

남원시에서 새만금권역 환경감시협의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새만금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유관기관 회의가 25일 개최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정책 전환 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최근, 새만금권역 지자체가 관할지역 환경오염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감시 및 단속정보를 공유 강화하는 시간을 다졌다.

시군별 폐수 대기 등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점검실적 및 이후 점검계획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환경감시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남원시에서는 이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및 민원다발 취약사업장 등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및 수시 정기점검을 11월까지 집중 추진하고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 교차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고의·상습적인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이후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술지원 등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농심저적 농기계임대사업 갈수록 인기

임실군, 역대 최대 실적 예상 내달까지 휴일근무제 도입

농민들의 든든한 농사도우미로 자리잡은 임실군 농기계 임대사업이 가을 영농철을 맞아 휴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휴일근무제를 실시한다.

임실군 농기계 임대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과 농기계 노후화 등과 맞물려 해마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인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주 5일 근무가 아닌 휴일근무제를 도입해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은 영농철에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크게 늘면서, 관내 설치·운영 중인 4개 권역별 사업소의 휴일근무를 실시 중이다. 다만 일요일에는 중부임대사업소만 운영기



임실군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휴일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로 했다.

군에 따르면 10월 현재 농기계를 임대사용한 농가는 5,922 농가로, 5,989대의 농기계를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6월 당시 3,637농가에 4,005대의 임대건수보다 무려 150% 이상 증가한 수치이자, 작년 한 해 동안 지원한 6,119농

가에 버금가는 실적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8000 농가 이상이 농기계를 이용, 역대 최대 실적에 예상되고 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본격화된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4년 3500여 농가에서 시작해, 올해 두 배 이상의 높은 이용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폭설 걱정 끝"... 겨울철 도로관리 이상 무

남원시 도로관리사무소 입주 제설차량 보관창고 신축

남원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월주 시장, 이석보 시장의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입주식을 가졌다.

남원시 도로관리사무소는 총 공사비 8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생면 상동리 99-1번지 일원(舊주생비행장)에 대지 11,796㎡, 건축 연면적 1,809㎡로 올해 9월 착공하여 9월말에 준공되어 도로보수원 및 운전원 15명이 상근하며 도로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새롭게 신축된 남원시 도로관리사무소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겨울철 제설을 위한 제설차량 보관창고와 595㎡의 규모로 신축돼 겨울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숙소가 108㎡로 건축되어 도로관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남원시 도로 관리 업무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월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로관리사무소 건립으로 우리시는 더욱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흥부마을 터울림 행사 27일 개최

제2회 흥부제의 서막을 알리는 '흥부마을 터울림 행사'가 27일 오전 10시에 흥부 출생지로 알려진 인월면 성산마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우애, 나눔, 보은, 행운의 흥부정신을 계승하고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풍요와 행운을 기원하는 인월농악단의 터울림(농악공연)을 시작으로 고유제,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신호 인월면장은 "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흥부의 고장인 인월면을 널리 알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인월면은 인월발전협의회(회장 이동식)와 성산마을회(회장 김수용) 주관으로 매년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흥부정신을 기리기 위한 터울림 행사를 갖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찾아가는 실버 영화관' 어르신 웃음꽃

대한노인회 순창지회 재능기부 12월까지 사업추진

순창군 동네 회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관이 차려 졌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는 재능기부 사업으로 '찾아가는 실버 영화관'을 운영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실버 영화관'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어르신들이 동네에서 편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고 동네 주민들끼리 화합의 장도 되고 있다.

관련해서 지난 24일 순창읍 금덕할머니경로당에서는 어르신 20여명이 모여서 '아빠와 딸' 영화를 상영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회관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주민들이 함께 모여 관



람해서 참 편하고 영화관에서 보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는 앞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관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